

정화의 작은이들



재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sunlee333@hotmail.com
월례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56 호

4 월 형제회 소식

2010 년 4 월 24 일

상반기 캠페인 주제: “좋은 생각과 좋은 말만하기”

오늘 월례회 순서

- † 오전 10 시: 리따 수녀님 영성 강의
- † 오전 10 시 40 분: 월례회
- † 오전 11 시:미사
- † 오전 11 시 50 분: 법적설립 예절식
- † 오후 12 시 10 분: 월례회 (계속)
- † 오후 1 시: 친교

형제회 소식

- † 다음 달 월례회는 5/29(토), 한맘 성당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 †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부모님 같은 연로하신 회원님들을 모시고 5/22(토), 점심식사를 접대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지)
- † 피양성자들(29 명)의 과제물 발표와 친목을 도모하는 ‘양성반 형제자매의 날’ 행사가 5/15(토), 한맘성당에서 오전 10 시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 † 금년 7/29 부터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 9 차 북남미 연수회가 세계 경제불황으로 1 년 연기되었습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 † 지난 4/17(토), 신귀자 데레사 자매님께서 큰손자(저스틴)를 보냈습니다. 축하해주시고, 아기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고 총명하게 잘 자라도록...
- † 지난 4/10(토), 향년 95 세로 선종하신 김상숙 자매의 어머니(성원순 사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 3/31(수), 위암 수술을 받은 김능식(빅터) 형제님의 완치와 건강 회복을 위하여...
- † 임혜선(루시아) 자매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회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사부님 영성의 향기(19) ‘거룩한 표양’

봉사자 이선영 하상 바오로 ofs

“세상과 형제들 사이에 계약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좋은 표양을 세상에 주어야 하고, 세상은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신의를 깨고 좋은 표양을 철회하는 경우, 세상도 그에 합당한 질책으로 그들에게서 손을 뗄 것입니다.” (2 켈라노 70 에서 발췌)

시대에 따라서 종교적인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제나 수도자들이 가난한 삶과 거룩한 표양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는 신자의 수도 줄어들고, 쇠퇴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평신도들은 세속에서 아귀다툼하며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짓고 살아가지만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심성 안에는 누구에게나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동경심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비록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그 거룩한 모습과 표양을 사제나 수도자들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대리만족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세상은 그 대가(?)로 사제나 수도자들을 존경하고, 필요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제공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가난한 삶과 거룩한 표양

보다 말로서 대신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부님은 현 시대의 이러한 현상을 예감하셨던지 “언젠가는 엄격함이 힘을 잃고 미온적이 되어 가난한 스승의 아들들이 설혹 붉은 비단 옷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비단옷만큼 값이 나가는 옷을 입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2 켈라노 69 참조).”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재속 프란치스코들도 비록 수도자는 아니지만 ‘세속에 사는 수도자’라는 인식으로 사부님의 가난하고 거룩한 표양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간다면 재속회에 지원자가 줄지어 들어오지 않을까요?

회계 보고

2010 년 3 월 31 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8,789.18	499.35	982.37	8,306.16
선교 후원금	2,984.28	510.00	0.00	3,494.28
도서 구입	1500.57	520.00	0.00	2,020.57

헨리 나웬 신부의 마지막 일기와 살아있는 그리스도

유기서약반 이두희 그레고리오

지난 3 월 26 일부터 28 일까지 미국 뉴욕주 Piffard 에 위치한 제네시 수도원으로 사순 피정을 다녀왔다. 수도원은 나이가 가라 국경 넘어 미국 버팔로 동쪽에 위치해 있는 트라피스트 봉쇄수도원으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개방이 금지된 수도원이다. 그런데 특별한 기회에 현대의 최고 영성가의 한 분이셨던 헨리 나웬 신부님께서 7 개월간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 당시 수도원 원장님과의 친분으로) 매일 매일 일기를 쓰신 것이 책(제네시의 일기)으로 출판되면서 우리들에게 친하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제네시의 일기’의 저자이신 헨리 나웬 신부님께서 토론토 근교, 지체부자유자들의 마을인 새벽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봉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 1995 년 9 월부터 일년간 안식년을 보내시면서 쓰신 마지막 일기에서 신부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지금 네 안에 있으면서 내가 시작한 일을 네가 이 세상에

서 계속 이어가는데 필요한 힘을 너에게 준다. 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제 2 의 그리스도로 불리우는 성 프란치스코, 우리 사부님.

- 2 차대전 당시 독일의 통치아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한 사람의 죄수가 탈출을 하면 10 명의 죄수들이 굶어 죽는 아사형을 당해야 하는 죄수들을 독일간수들이 불러낼 때, 10 명중에 한 명으로서 자기는 처자식이 있어 죽을 수 없다고 울부짖는 한 젊은 가장을 대신하여 내가 죽겠노라고 자청하여 대신 아사형을 당하고 돌아가신 꼴베 신부님.

-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인권운동에도 함께 하였고, 베트남전쟁 반대데모에도 함께 하셨으며, 유명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인 명예도 접으시고, 새벽공동체에서 지체 장애우들의 몸을 닦아 주시면서 10 년간 영적 지도자로서 봉사를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헨리 나웬 신부님.

- 의학을 공부하시고 의사이셨다가 사제품을 받으시고, 낮 온도 섭씨 50 도가 넘는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라는 작은 마을에서 의술을 펼치시며 그곳 아프리카 톤즈 원주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시고 그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 봉사하시다가 얼마 전에 대장암으로 40 대 젊은 나이에 하느님의 품으로 가신, 한국의 슈바이처 이태석 요한 신부님.

사부님과 같이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재속회 공부를 시작하였고 작년에 유기서약을 하였으며, 올해는 별일이 없는 한 종신서약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재속회 회원이 되면 사부님과 같이 낮은 삶,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신 앞에 소개한 신부님들을 조금이라도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 실천을 하며 살아가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느님께 매달리고 기도 드린다. “주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